2000년대 환경운동 주도…도약 위한 변화 '요구'

20주년 맞은 불교환경연대 성과와 과제는

6월 11일 원탁 토론회서
관계자 격려 · 축하 전해
인물중심 활동은 아쉬워
확장성 · 후학 양성 과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교환경연대가 출범 20주년을 맞았다.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자연 파괴를 저지하고 뭇생명과 함께하기 위한 실천행에 앞장서 온 만큼, 수많은 성과가 축적됐다. 불교환경연대가 지난 20년간의 활동을 되짚고 앞으로 20년을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6월 11일 원탁토론회 '돌아보고 내다본다'에서는 이병인 조계종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명호 생패지평 부소장,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 맹주형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연대팀장 등 불교환경연대와 함께해 온 이들의 축하와 제언이 이어졌다. 이를 토대로 불교환경연대의 지난 성과를 진단하고 도약을 위한 과제를 분석한다. **편집자주**



불교환경연대가 6월 11일 지난 20년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불교환경연대는 2001년 9월 6일 초대상임대표이자 환경운동의 상징 수경 스님을 주축으로 출범했다. 정부의 지리산댐 건설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 6월 창립한 '지리산살리기 · 댐백지화 추진 범불교연대'가 사실상의 전신이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이 발제한 '한국불교의 환경 · 생명운동의 역사와 미래'에 따르면 수경 스님이 중심이 된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삼보일배'는 환경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내원사 산감이었던 지율 스님이 '천성산살리기운동'을 전개하면서 도룡뇽 소송의 중심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했다. 2007년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저지하는 오체투지, 4대강 개발 저지 등 각종 이슈를 선제적으로 이끌면서 불교환경연대는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구심점이 됐다는 평가다.

유 위원장의 분석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00년대 환경운동은 불교환경연대를 빼고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전국의 다양한 이슈에서 두각을 드러냈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수경 스님과 도법 스님은 환경과 생명을 대변하는 상징이었으며, 환경 분야에서 불교계 위상은 대체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정성운 前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불교환경연대 20년 돌아보기' 발제에서 불교환경연대 출범 당시 불교계는 각종 개발로 수행환경 침해에 직면했던 상황이었음을 짚었다. 사찰 피해에 대한 대응을 명분 삼아, 자연환경과 그 속에 깃든 생명을 보호하는 데 그 본질과 목적을 둔 셈이다. 불교환경연대가 창립법회에서 "불교환경연대의 출범은 곧 참회와 환경보살의 서원"이라고 선언한 데 이어, 사업계획으로 사찰 주변의 생태문화 조사, 불교환경론의 정립, 불교환경 교육, 환경파괴 행위에 대한 대응을 제시한 것도 이를 대변한다.

불교환경연대와 함께해 온 모든 이들이 그간의 성과에 동의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낸 대목은 과거의 활동이 수경 스님 등 상징적 인물에 의존했다는 뼈아픈 성찰에 있었다. 정성운 前 사무처장은 이를 '준비하지 못한 수경 스님 이후'라고 표현했다. 그는 "불교환경연대에 비춘 빛은 수경 스님이라는 훌륭한 수행자이자 헌신적인 활동가의 몫이 가장 컸다"며 "수경 스님의 빈자리가 너무 컸기에 그 공백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 불교환경연대는 스님의 사퇴 이후 급격히 침체됐다"고 지적했다.

이병인 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20년의 불교환경활동은 한두 사람의 인물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인물 · 단체의 활동으로 제한돼 불교 전체의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대중적 활동으로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수경 스님 사퇴 이후 5년을 표류하던 불교환경연대는 2015년 7월 법일 스님을 새 상임대표로 선출하는 등 재활성화에 나섰고, 대표단과 운영위원회, 사무처 체제에서 안정세를 찾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는 산적해 있다. 관계자들은 확장성과 세대교체, 대안적 실천 모색 등에 무게를 뒀다.

이병인 교수는 "앞으로 활동들은 불교가 가진 장점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특화시켜나가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며 "불교생태이론과 담론들을 공염불이 아니라 일반 불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침과 활동으로 단순화하고 연대활동 등을 통해 불교계 전체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인드라망생협 부이사장은 "명망있는 스님들의 활동이 사부대중의 참여에 의해 조직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운동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사부대중과 함께하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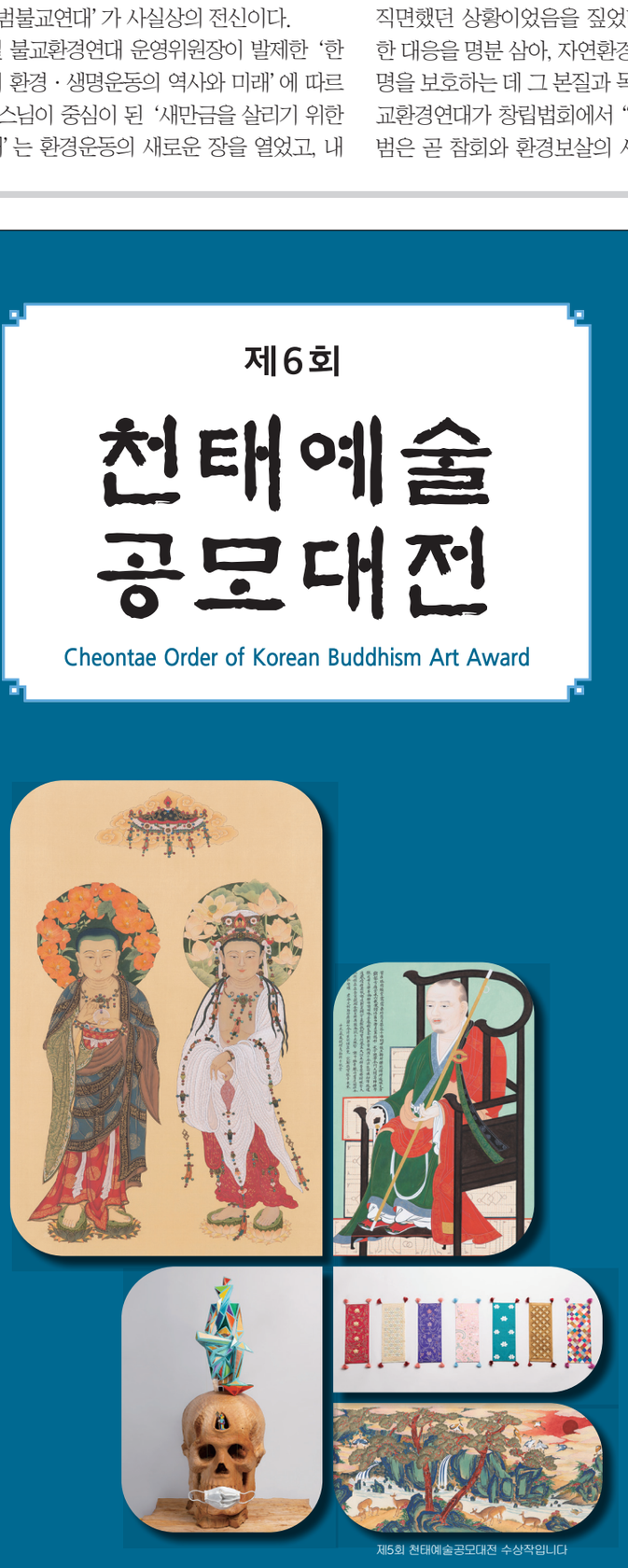
지난 활동을 계승하고 지속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필요성도 거듭 제기됐다.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은 "대중화를 위한 토대 및 추진 주체가 돼야 할 스님과 종무원, 활동가, 포교사, 강사 · 퍼실리데이터 등을 육성 및 운영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잠재적 활동 주체에 대한 교육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하며 나아가 이를 종법으로 제도화하고 주지연수 및 승가대 · 종립대학의 커리큘럼에 반영하는 시스템적인 접근도 고려할 만 하다"고 제언했다.

박재현 신대승네크워크소장은 "2001년 당시의 문제해결의 의식과 활동방식으로는 2021년 도래한 지구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사회적 의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불교내부를 변화시키고 우리사회에 새로운 생태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그에 걸맞는 조직과 인적 · 물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불교환경연대는 지리산 댐건설을 저지한 성과를 시작으로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저지, 새만금 · 4대강 반대, 빈그릇운동과 숲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존재로서 우리 사회의 자연환경이 더 보존됐고 생명존중 문화가 높아졌는지를 돌아보면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지난 20년을 겸손히 돌아보고 다시 2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제6회
천태예술 공모대전
Cheontae Order of Korean Buddhism Art Award


제5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수상작입니다

부문 및 부문별 공모 개요

부 문	규 격	유 의 사 항
불 화 (전통·현대)	200호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	표구된 완성작만 접수
조 각	높이 250cm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 무게 500kg 미만	조립한 완성작으로 제출
공 예	높이 200cm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	
민 화	200호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	액자 제작 후 접수

※ 자격 제한 없음
※ 1인 3점 이하
※ 1점당 5만원, 대학 재학생은 3만원 (학생증 사본 필수)
※ 액자 유리 금지

시상 내역

시 상	수 상	시 상 내 역	비 고
대 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명	상금 2,000만원 상장 상패	종단 귀속
최 우 수 상 (문화재청장상)	1명	상금 700만원 상장 상패	
우 수 상	4명	상금 각 200만원 상장 상패	
장 려 상	4명	상금 각 50만원 상장 상패	
특 선	약간명	상장 및 상품	
입 선	약간명	상장	
특 별 상		상장 및 기념패	

제출서류
- 출품원서(소정양식) 1부
- 작품설명서(소정양식) 1부
- 대학생 학생증 사본

공모요강·원서 배부
-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다운로드

작품 접수
- 접수 기간 : 10월 13일(수) ~ 14일(목)
-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접수 장소 : 관문사 2층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접수 계좌
신한은행 100-030-083607 예금주 대한불교천태종

심사 발표 금강신문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통보

문의 천태예술공모대전 사무국 02-547-4746

시상식 및 전시
11월 24 ~ 29일 서울 관훈동 동덕아트갤러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51-8 동덕빌딩 지하 1층

접 수 10.13(수) ~ 14(목)
전 시 11.24(수) ~ 29(월)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주관 제6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운영위원회
시행 대한불교천태종 천태문화사업단
후원 금강신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

자세한 사항은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조계종 전법 현장 활동 지원한다

포교원, 6월 15일 전법단 대표자 회의 개최

조계종 포교원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전법포교 현장을 지원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6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전법단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법단 대표자 회의에는 전법단 총재인 포교원장 범해 스님, 전법단장인 포교부장 정인 스님을 비롯해 9개 전법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참여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2010년 4월 전법단이 출범해 10여 년이 지났다. 전법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군포교나 병원, 경찰, 교정교화, 장애인, 체육인, 국제분야와 청소년대학생, 어르신 계층별 전법단 등 전법분야가 더욱 많이 확대되고 있다"며 "불교가 우리들의 삶에 심화될 수 있도록 포교원도 노력하겠다. 사회 곳곳에 부처님 가르침이 스며들어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교원 측에서는 전법단 회의에서 먼저 전법단 운영관리에 관한 령에 기반한 각종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전법단 지도법사 지원절차에서 전법단 지도법사 중 3급 승가고시를 이수하지 않은 스님이 2년 이상 전법단 활동을 성실히 했을 경우, 교육원 '승려연수교육에 관한 령'에 의거 연수교육 이수로 인정받도록 한 제도 시행을 소개했다.

각 전법단에서 지도법사 활동보고서를 포교원에 매년 9월 15일까지 제출하면, 포교원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에 이첩한다. 이와 함께 활동보고서를 포교원에 접수하면 교구본사와 직할교구에 인사고과 반영 협조 요청을 포교원이 공문으로 발송한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9개 분야 전법단의 연간 주요사업이 공유됐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법현장에서 활동이 제약된 가운데 특색있는 사업이 소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도난됐던 보덕사 석조관음상 '환지본처'

문화재청 · 울산경찰청 공조 수사로 15일만에 회수

도난됐던 울산 보덕사 석조관음상이 회수돼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울산경찰청(청장 유진규)과 공조 수사해 지난해 12월 울산시 울주군 소재 보덕사 관음전에서 도난당했던 '석조관음보살반가상' 1점을 온전하게 회수해 이달 중 다시 보덕사로 돌려주기로 했다"고 6월 17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한 '석조관음보살반가상'은 보덕사 관음전에 있던 것으로,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야간에 몰래 해당 장소에 침입해 불전함과 석조관음보살반가상을 자신의 차량으로 훔쳐내 창고에 보관 은닉했다. 문화재청은 울산경찰청과 공조해 탐문과 폐쇄회로 TV(CCTV)를 통해 신속하게 검거해 15일 만에 회수한 바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찰에 해당 불상을 모시기 위하여 절취했다고 진술했다.

보덕사의 '석조관음보살반가상'은 높이 약 57cm의 중소형으로 바위에 앉아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은 반가좌의 자세를 한 관음보살을 표현한 비지정문화재로, 경상북도 경주 일대에서 나오는 경주석이라고 부르는 불석(佛石, Zeolite)으로 조성된 불상이다. 수인(手印, 불보살을 상징하는 손모양)은 양손을 편 상태로 손가락을 붙여서 무릎과 바위에 가지런히 놓았는데 이 점은 불석의 석재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도난됐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게 된 울산 보덕사 석조관음보살반가상.

보덕사 보살상은 사각형(방형)의 얼굴, 가늘고 긴 눈, 미소 띤 작은 입술, 옷 입은 방법과 수인의 형태 등에서 조선 후기 17~18세기의 보살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반가좌의 자세와 수인의 모습은 조선 후기로 볼 수 있으며, 불석이라는 재료와 암반 위에 반가좌 자세를 한 석조관음보살상이라는 도상 측면에서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문화재청은 "향후에도 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더욱 공고히 해 문화재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